십자가기도는 복된 칼부림

(에스겔 21:1~32)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기도는 복된 칼부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기도는 복된 칼부림'

칼부림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숙련된 실력으로 칼을 사용하지만 이를 두고 칼부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칼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외의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가짜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께 도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헛된 기도시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십자가기도가 칼부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는 식사시간입니다.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분명한 사실로써 실재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는 최고급의 레스토랑과도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먹기 위해 마음이 천국식당으로 올라가고 내 마음이 없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내 삶을 사시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기도는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십자가를 보아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는 나를 죽이는 복된 칼부림입니다. 이 복된 칼부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활동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칼이라는 단어가 21번 반복되어 나오고 칼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칼로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칼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14~17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라고 칼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선민이 반드시 칼을 써야 하는 일에서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6장 51절이 떠오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칼을 쓰지 않아 망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칼로 인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으니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칼은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10장 34~38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부활과 승천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맺어진 관계들을

칼부림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칼부림으로 끊어내고, 딸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칼부림으로 끊어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칼부림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집안 식구조차도 원수처럼 여겨서 끊어내야 합니다. 칼을 쓰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언급되는 칼의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에스겔의 예언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앞서 19장에서 두 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언급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나는 하늘 먹는 사자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민은 땅에서 먹잇감을 찾지 않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두 사자와 포도나무는 선민다움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을 먹은 상태에서 생겨나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통해 그 외의 모든 대상을 관계하게 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등장하는 열매였습니다.
하늘을 먹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먹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에 의해 땅에서 관계하고 행동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20장 말씀을 통해 “모래시계형 라이프스타일”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이야 말로 선민들이 하나님을 먹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담처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안식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먹을 수 없기에 안식일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오늘 본문에서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선민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의 첫 만남을 재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날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만 먹는 것을 일로 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며 기업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아담의 마음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한 방법이 나에 대한 칼부림인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암몬에 대한 칼의 심판이 짧게 등장합니다. 암몬은 지독한 우상숭배를 행

했던 대표적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 이유는 선민들의 삶이 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먹은 선민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민다움이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 사랑과 은총을 무효로 만들고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세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민들의 마음은 육체에서 생겨난 수많은 관계와 문제들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좋아하는 대상이 생겨나면 살이 되듯이 유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으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 이유는 연인이 마음에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유착이 일어나 살이 되는 대상은 비단 연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 심지어는 내 몸이나 돈을 비롯해 육체로 맺는 모든 관계가 그 대상들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눈뜬 첫 날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자면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절대 평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유착된 살을 베어내는 칼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세상과 유착이 일어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담고, 자녀는 부모를 담고 있습니다. 미워하여 담는 대상도 있고 좋아하여 담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유착은 베어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부모나 자녀를 원수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고 유착되어 살이 되어버린 부모나 자녀를 원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걱정도 마음에서 살이 되었다면 원수로 여겨서 베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고 먹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살펴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음에 살이 된 세상을 남김없이 칼로 베어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양의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나누어서 조각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을 뜨듯이 우리의 마음을 베는 칼부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선민들이 하나님 이외에 대상들을 품은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담의 첫 날 같이 되기 위해 칼부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부림의 구체적 대상이 2절에서 언급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평판이 좋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칼부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악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을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의 나라는 남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칼부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부림의 구체적 의미가 2절의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는 말씀에서 드러냅니다. 성소 앞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양을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양을 칼로 죽이고 부위별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복지에서 살아가던 모든 선민들은 이 상번제를 상기함을 통해 마음의 칼부림을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린양에게 칼부림을 할 때에 자신들의 마음에 칼부림을 했어야 됩니다. 이는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이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려서 이 땅에서 실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끝내 이 마음의 칼부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선민은 누구나 제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부림은 곧 상번제에서 각이 떠지는 어린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린양의 각을 뜨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대상들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몸이 조각조각 나뉘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와서 살이 되어버린 배우자도 베어내고 자녀도 베어냅니다. 돈 걱정도 베어내고 친구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어도 베어내고 건강 걱정도 베어내고 일에 대한 염려도 베어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마음에 담기게 된 것이 있다면 번제단의 어린양을 떠올리며 칼부

림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고 세상을 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하나님을 우상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내 삶에 대한 나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주는 신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계획을 이룰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선민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칼부림을 통해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칼부림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전 설교에서 주기도를 배울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5절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과 7절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기록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싸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삶에 대한 소원과 꿈이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소원과 꿈까지도 칼부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계획이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러므로’란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이 담겨있으므로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칼부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기도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면 마땅히 마음도 아버지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담긴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을 하나님께 보낼 수가 없기에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린양을 죽여서 각을 뜨듯이 마음에 유착되어 살이 된 세상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의 살이 되어버린 세상을 베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칼부림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칼로 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선민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칼부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와 비교해서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음은 번제단의 어린양과 같이 각을 뜨는 칼부림이 필요했습니다. 선민들이 번제단의 어린양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겨서 유착된 모든 것들을 칼로 베어내면서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각을 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살갗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세상이 떨어져나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돈을 좋아함이 배우자를 사랑함이 마음에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양의 각을 뜨듯이 채찍에 맞아 살갗이 찢어지셔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칼부림을 위해 예수님의 몸에 칼부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고 복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칼로 삼아서 마음에서 유착된 살을 베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붙은 세상이 베어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칼부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심판의 칼이 아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먹는 레스토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먹고 만족을 누릴 때에,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결정된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뜻들이 내려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색을 덧칠해갈 수록 어둡고 무겁고 칙칙한 색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발산하는 계획은 무지갯빛 보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모래알처럼 쌓이고 은막에 비치는 영상처럼 비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칼부림을 이루는 십자가 기도를 통해 오늘도 모래시계형 라이프스타일의 선민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와 같은 마음 상태를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칼로 삼아 마음의 살들을 베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모래시계형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해내는 참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